



양선희
기자

베개를 닮은 고양이와 소파에서 뒹굴기

“고독과 게으름은 상상력을 자극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이다. 굳이 위대한 작가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인간의 상상력은 자유로울 때, 그냥 편안하게 이것저것 해볼 수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분일초를 재며 생활하는 사람에게 딴 생각, 즉 상상력은 들어설 여유가 없다. 미래는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지만 현실은 개개인에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유를 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빨리 끝내는 것이 미덕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일만 하기에 하루하루가 모자란 상황이다 보니 책 읽을 시간도 지하철에서나 겨우 허락된다(그것도 앉아야 가능한데 이마저도 확률상 쉽지 않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독서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독서시간이 부족하다보니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에 맞는, 말 그대로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책은 미뤄두고 어학책 같은 실질적인 정보와 도움을 주는 책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빨리빨리병과 일 중독증을 점검해 보지 않고는 책 읽으라는 말은 ‘한가한’ 공염불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텔레비전을 보며) 카우치에 앉거나 누워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카우치 포테이토’는 그간 우리에게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한심한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 말에는 거부하기 어려운 정겨움과 여유로움이 있다. 카우치 포테이토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든, 책을 읽으며 온종일을 보내며 바깥 세상에 무관심할지언정 적어도 타인을 괴롭힌다거나 호전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이 게으름뱅이들에게 굽지 않은 시선을 던진다. 그러나 쫓기는 삶을 사는 현대인들(카우치 포테이토가 아닌 사람들)에게 ‘뭐가 그리 바쁜가, 속도전으로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고 묻는 두 권의 책은 읽는 재미 외에도 우리 삶의 방식을 뒤돌아보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지난 겨울 넥서스에서 출간된 《소파의 세계》는 자신의 건강과 영혼을 해치지 않는 정도 안에서 일을 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자기 시간을 갖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 권은 이미 적지 않은 고정팬들이 있는 ‘스노우캣’이라는 고양이의 일기 《스노우캣 다이어리 1》이다. 타인과 불필요한 관계 맺기에 시간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혼자서 자신과 노는 법을 개발하는 것이 낫다는 게 스노우캣의 주장이다. 베개를 닮은 이 고양이는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타인과 함께 사는 방식에 익숙하지 못해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다. ‘귀찮아, 귀찮아’라는 말에는 왜 내가 이 이해하기 어려운 속도전의 세계로 편입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는 요즘 신세대의 정서와 맞닿아 있다.

귀차니스트, 혹은 카우치 포테이토가 아닌 사람들일지라도 때때로 카우치 포테이토가 되고 싶을 때가 있다. 즉, 모든 게 귀찮아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다. 이 ‘때때로 게으름뱅이들’이 많아져야 책도 더 읽힐 것이고, 그래야 상상력도 더 발휘되지 않겠는가.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더 재미있고, 문화적으로도 풍요롭다. **한민**